

EU 역외보조금 심사 통과 한수원, 체코 원전사업 '청신호'

역외보조금 심층조사 미개시 통보
약 24조 초대형 체코 국책 사업
산업장관 "韓 원전 경쟁력 입증 성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유럽 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며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치워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한 덤핑 수출' 의혹을 불식시키면서 체코 원전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한수원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일 한수원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과 관련한 EU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공식 통보했다.

EU 역외보조금규정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보조금)가 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심층조사는 역외보조금이 경쟁 왜곡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착수하는 절차로, 이번 미개시 결정에 따라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한 EU 차원의 보조금 리스크는 사실상 완전히 마무리됐다. EC는 지난해 2월부터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한수원 측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성실히 협조해 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약 2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체코 국책 사업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이다.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프랑스(EDF) 등 경쟁국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쟁사 이의제기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취소·무효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6월 최종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원전 역사상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자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원전의 해외 신인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이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인허가 서류 제출과 부지 조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제는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도 체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한-몽골, 19개월 만에 CEPA 협상 재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5차 협상
상품양허 등 15개 분야 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정부가 리튬, 구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부족인 몽골과의 경제 영토 넓히기가 다시 속도를 낸다.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이 1년 7개월 만에 다시 본격 도에 올랐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몽골 CEPA 체결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 관해진 통상교섭

실장과 몽골측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각각 수석 대표로 양국 협상단 40여 명이 참석한다.

한-몽골 CEPA는 지난 2023년 12월 첫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24년 11월까지 4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으나, 이후 몽골 측 사정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3월부터 양측간 재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국과 몽골은 산업 및 교역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평가받는다. 세계적인 제조·기술역량을 갖춘 한국과 리튬, 구리, 희토류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이 풍부한 몽골이 손을 잡을 경우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정부

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이번 5차 협상에서 ▲상품양허 ▲서비스(화상)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5개 분과 전반에 걸친 본격적인 조율에 나선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몽골과의 CEPA는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진전을 도모함으로써,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기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수입수산물 이력관리대상 확대

유통 투명성 확보하고 안전관리 강화

냉동 갈치·고등어 등 대중성 수입 어종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의 유통 투명성 확보와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29일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대해, 통관 이후부터 최종판매 이전까지 유통 단계별 거래명세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

가 발생할 시 신속한 경로 추적 및 조치가 가능하다.

고시 개정의 핵심은 국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중성 어종을 관리 대상에 대거 포함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냉동 고등어 ▲냉동 갈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냉장 오징어 등 5개다. 이로써 전체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은 지난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 발표에 따라 기존 22개에서 27개로 확대 운영된다.

또 기존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뱀장

어, 냉동 조기 등 22개 품목의 지정 기간은 오는 2029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신고 의무가 있는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수입 수산물을 양도한 후 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에서 신고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입력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수산물 유통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IAT, 3부원장 체제로 개편

미션 중심 책임부원장 체제 도입
실무·전문형 인력 전진 배치
AX 전환·지역성장 지원 강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정부 산업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KIAT는 기존 '4본부 9단 1센터' 체계를 '3부원장 11본부장' 체제로 전환하고, 실무·전문형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기능 중심 조직을 미션 중심의 책임체제로 전면 전환한 점이다. 산업혁신, 지역혁신, 경영혁신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이행력과 대외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미션 중심의 책임부원장 체제를 도입해 정책 이행력을 높였다. 또 산업통상부와 기업 등 주요 고객과의 대외 소통 경로를 명확히 정비했으며, 기능과 업종을 재구조화해 부서 간 협업과 현장 실행력을 강화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산업혁신 부원장'은 첨단제조 AX(AI 전환)를 가속화하고 기술사업화, 국제혁신, 국제협력 등 산업 기술 혁신 전 주기의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혁신 부원장'은 지역혁

신 기능을 재정비해 '5극3특' 지역성장을 중심으로 제조기반, 공급망, 산업인재, 중견기업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경영혁신 부원장'은 기관 경영전략과 성과 관리, 대외협력, ESG경영 고도화를 전담한다.

조직의 실질적인 실행단위도 대폭 강화됐다. KIAT는 부서장급 인사를 실행 중심으로 재편하며 전체 부서장 규모를 기존 47명에서 53명으로, 실장급은 34명에서 38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정책기획 역량과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전윤중 KIAT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는 단순한 조직명칭 변경이나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KIAT를 산업기술혁신 플랫폼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행체계 개편"이라고 이번 개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산업혁신, 지역혁신, 경영혁신의 3대 책임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핵심 정책 과제인 AX 전환, 5극3특 지역성장 등 산업정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현장의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K-외식, 호주인 입맛 사로잡았다

aT, 박람회서 바이어 상담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6 호주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국내업체-현지바이어 간 주선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T는 지난달 25~27일 기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K-외식기업의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이 행사는 약 1만5000명이 찾은 오세아니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전문 박람회다. 올해는 국내에서 413개 기업이 참가했다.

호주는 2024년 기준 외식매장 수만 6만 5000개에 이르는 오세아니아 핵심 외식시장이다. 한국관은 금번 오세아니아 지역 외식 박람회에 최초로 참가해 K-외식업체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aT는 박람회장의 중심인 레스토랑 구역에서 즉석떡볶이, 피자, 빙수 등의 메뉴를 갖춘 국내 유망 프랜차이즈 기업 5곳



'시드니 프랜차이즈 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

/aT

과 함께 '한국관'을 꾸리고, K-외식기업의 매력을 뽐냈다.

현장에서는 사흘간 총 88건의 바이어 상담이 진행됐다. 참가업체 중 녹차도우를 활용한 건강한 피자를 전면에 내세운 기업은 박람회 기간 중 마스터 프랜차이즈 관련 MOU를 2건 체결하며 신규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또 K-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즉석떡볶이, 피자, 빙수 등에 바이어들의 호응도가 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입직원 72명 채용

13일부터 채용 홈페이지서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한다.

한난은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한 72명을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총 모집인원 72명 중 ▲일반 분야 57명 ▲사회회평 분야(보훈 등) 7명 ▲고졸인재 분야 8명을 선발한다.

특히 한난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취업 기

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자녀,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우대기준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류 접수부터 필기, 면접전행 전 과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직무능력기준(NCS) 기반 직무역량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입사 지원서는 오는 6월 13일부터 한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신입직원은 오는 9월 중 임용될 예정이며, 3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근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세종=한용수 기자